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및 2월 동향

2025.02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03

II. 규제 동향 — 05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 12

IV. FAQ — 14

V. 그룹·센터 소식 — 16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2025년 이사회 아젠다

2025년 1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On the Board's Agenda – The 2025 board agenda」

원문 다운로드

- 2025년 이사회는 한 해 동안 직면할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회사가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 주요 아젠다

구분	주요 내용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행정부의 교체는 무역, 조세정책,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 이사회는 전문성 보유 이사 영입,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규제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 행정부의 교체로 기후변화, 금융 서비스 등 기존 규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의 규제 대응 전략을 감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함
전사적 리스크 관리 (ERM) 강화	• 리스크 증가 및 복잡성 심화로 ERM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기존 ERM 체계의 전면 재검토 및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기술 혁신과 리스크: 사이버보안 및 생성형 AI	• 사이버보안은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임 • 생성형 AI는 기업의 효율성 향상, 혁신 기회 제공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윤리, 데이터 신뢰성 등 리스크도 수반함 • 이사회는 경영진이 AI 활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균형 있게 수립하도록 감독해야 함

2025년 이사회 아젠다 (계속)

2025년 1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On the Board's Agenda – The 2025 board agenda」

원문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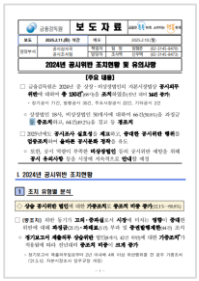
- 이사회는 생성형 AI 활용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사회 체크리스트

- 생성형 AI는 이사가 신의성실 의무 이행 시 유용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는 이사회가 다양한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는 경영진이 수립한 전략 및 재무 예측 모델에서 사용된 가정에 오류가 있는지 식별하고,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는 재무 보고서의 오류 또는 내부통제 취약점을 식별하여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인수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가?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2025.2.11 (화) 금융감독원



원문 다운로드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14건 증가함
  - 정기공시 71건(54.6%), 발행공시 35건(26.9%), 주요사항공시 22건(16.9%), 기타공시 2건(1.6%)
- 상장법인 18사, 비상자법인 50개사에 대해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함
  -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이 증가함(12.1% → 50.8%)
  - (상장법인)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BW 발행 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함
  - (비상장법인)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함

<표1>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조치	과징금	30	(15.5)	18	(20.7)	18	(20.5)	11	(9.5)	21	(16.2)
	증권발행제한*	16	(8.3)	-	-	4	(4.5)	1	(0.9)	44	(33.8)
	과태료	6	(3.1)	3	(3.4)	-	-	2	(1.7)	1	(0.8)
	소계	52	(26.9)	21	(24.1)	22	(25.0)	14	(12.1)	66	(50.8)
경조치(경고·주의)		141	(73.1)	66	(75.9)	66	(75.0)	102	(87.9)	64	(49.2)
합계		193	(100)	87	(100)	88	(100)	116	(100)	130	(100)

*상장폐지 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임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2025.2.10 (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하의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함
- 주요 내용

1.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시범운영·컨설팅, 도입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
  - (은행·지주)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기타) 도입일정에 맞춰 준비 지원 및 시범운영
  -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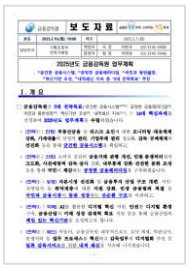
-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 유도

3.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등과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 추진
  -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제기(speak up)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4. 내부통제 강화

-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설 및 '보험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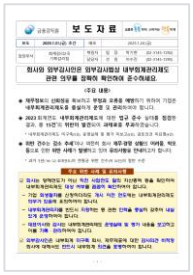
원문 다운로드

별첨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2025.1.31 (금) 금융감독원

-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해야 함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
- 주요 내용


보 도 자 료

원문 다운로드

구분	내용
회사	•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필요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이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 –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 표명 필요 –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감사 대상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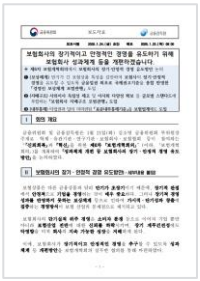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위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등 개편

2025.1.24 (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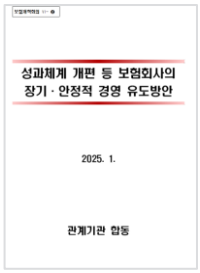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지배구조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을 논의함(1.21)
-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이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함
-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안)

1. 사외이사 지원
•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 이사회 보고 권한 부여
2. 경영승계
• 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3. 이사회 구성·평가
•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예: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 마련,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
4. 지배구조 평가·공시
•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 연 1회 이상 실시
5. 보험계리조직 지원
• 선임계리사에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 등 부여

-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5년)을 갖고, '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 예정이며,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모범관행이 보다 구체화될 계획임



원문 다운로드



별첨 다운로드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

2025.1.21 (화) 금융감독원

원문 다운로드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의 정확한 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마련함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 보고, 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주요 내용

1. 가이드 구성

-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 등의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국제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실무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제출인이 정확한 XBRL 재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회계기준, XBRL 주석 모범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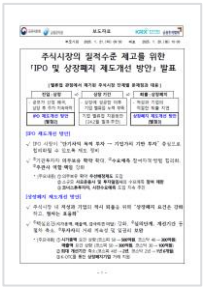
2. 기대효과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향후 기업의 자체적인 XBRL주석 작성·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외부 전문가 비용 절감이 기대됨
- XBRL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현 XBRL 주석 공시 방식을 변경하려는 국가가 동 가이드를 활용함에 따라, 재무데이터 국제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내·외 투자자가 고품질의 XBRL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XBRL 데이터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교육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1.21 (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원문 다운로드

- IPO 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 산정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함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IPO 제도개선 방안	•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도입 지속 추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 •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 시가총액 요건 상향(코스피 50 → 500억원, 코스닥 40 → 300억원), 매출액 요건 상향(코스피 50 → 300억원, 코스닥 30 → 100억원) – 최대 개선기간 축소(코스피 4년 → 2년, 코스닥 2년 → 1년 6개월) – K-OTC를 통한 상장폐지기업 거래 지원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

2025.1.9 (목)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함
- '24년 한 해 동안 총 204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했으며, 공시 기업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거의 모든 기업(203개사)이 GRI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SASB, TCFD 기준 등을 주로 사용함

<표1> 연도별 보고서 공시기업 수

(단위: 개사,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공시기업 수	38	78	129	161	**204**
증가(증가율)	18(90%)	40(105%)	51(65%)	32(25%)	**43(27%)**

- 대규모 법인(자산 2조원 이상,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일수록 공시비율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금융·보험업의 공시비중이 높음
- 한국거래소는 기후 관련 기업 공시역량 강화 및 기재충실도 제고를 위해 부문별 모범 작성사례를 제시했으며,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금융당국, 보험사·성과체계 지배구조 대수술 [서울파이낸스]
-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지배구조 개선 성과 나와야' [아주경제]
- 보험사도 CEO 승계 계획 마련한다...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데일리안]
- 금감원 업무계획서 '지배구조 개선' 빠졌다 [뉴스토마토]
- 일본 주주총회, '6월 집중' 악습 깬다...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논의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 ESG 고삐 쥔 롯데...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한국경제TV]
- 이복현 '낙후된 은행 지배구조, 대규모 금융사고 유발' [아시아경제]
-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추위 설치...지배구조 개선 [서울파이낸스]
- HMM '밸류업 계획' 들여다보니...재무 보다 지배구조 [연합인포맥스]

이사회·감사위원회

- 이복현 '이번 주 금융회장들과 이사회 책임 강화 논의' [아이뉴스24]
-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어디 없소' 역대급 구인난 [한국경제]
- 금융권 사외이사 여전한 거수기 오명...4명 중 1명 검증 필요 [경향신문]
- 작년 100대기업 여성 사외이사 110명...女임원 증가세 꺾여 [매일일보]
- 고려아연, 황덕남 이사회 의장 선임...창사 최초 사외이사 여성 의장 탄생 [인더스트리뉴스]
- 기업 사이버 보안 성공 핵심 'CISO와 이사회 간 보안 인식 격차 해소' [지티티코리아]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경호 센터장 '美 비트코인 비축시, 전 세계 포모(FOMO) 부를수도' [매일경제]
- 트럼프 2기 태풍에 대비...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상 전문가' 영입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산업 전망' 보고서 발간 [연합뉴스]
- 'ROI는 미흡, 경영진 기대는 여전'...딜로이트, 4분기 '생성형 AI 현황' 발표 [CIO]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정창모 수석위원 '기업 AI 에이전트 도입, 전사적 전략부터 세워야' [IT 조선]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5건 적발...기업 투명성 점검 강화 [메트로신문]
-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한경]
- 회계법인 CEO들 만난 이복현 '신규상장 한계기업 회계 감독 강화할 것' [뉴시스]
- KICPA, 새마을금고법 개정...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이데일리]
- 이복현 한계기업 회계처리 적정성 조기 심사 [아시아투데이]
-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투명성 강화 [쿠키뉴스]
- 1분기 중 IMA 제도 마련...좀비기업 회계 심사 강화 [연합인포맥스]

부정행위방지

-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안 봐준다...금감원, 부당 사익편취 엄정조치 [뉴스1]
- 금감원, 상습 공시 위반 철퇴...반복하면 가중 처벌 [뉴시스]
- 내부통제 강화 나선 증권사...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속도 [데일리안]
- 금감원, 보험 실적 경쟁 촉발 회사엔 특별감리 [금융소비자뉴스]
- 금융당국, ETF 광고 허위 과장에 칼 빼들다...자산운용사 긴장 [경제공감]
- 금융당국,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공개매수자·자문사 직원 검찰 고발 [한국금융]

규제동향

- 금감원, 재무공시 언어 XBRL 작성 가이드 마련 [연합뉴스]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이투데이]
- 금융위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금융보안 규제 개선 [아시아투데이]
- 불확실성 시대, 복합위기 가능성...금감원, 올해 시장 안정에 방점 [내일신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상장사 204곳...1년새 27% ↑ [한국경제]

M&A

- 작년 M&A 상장사 148곳...전년보다 21% 늘어 [연합뉴스]
- K뷰티 후광 입는 'K렌즈'...M&A 매력도 높아진다 [마켓인]
- K-건설기계, 줄줄이 실적 악화...M&A 신흥시장으로 돌파구 찾는다 [CEOSCOREDAILY]
- 빅딜 드디어 나올까...조 단위 M&A 꿈틀 [마켓in]
- 다양한 M&A 모색...카카오뱅크, 투자 확대로 밸류업 속도 [테크M]
- 조달금리 언제 낮아질까...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M&A 시장 [이데일리]

1. 최근 공개매수자 및 자문사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적발·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이며, 이는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검해야 함
  - 특히, 공개매수 정보,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 등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내부에서 사전 유출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회사 내부자(임직원·주요주주), 준내부자(인허가권자·계약체결자), 1차 정보수령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1]를 이용한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 [2]
- 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중요 정보 취급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법률·회계·증권 자문회사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3]
- 감사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역할을 하기와 같이 수행해야 함

내용
• 내부정보 접근 및 공유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및 시행 여부 점검
• 내부정보 활용 감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검토 수행
•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의 임직원 대상 법적·윤리적 교육의 정기적 시행 여부 점검
•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협력

1)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前인 정보
2)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2017.06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조치」, 2025.01.31

1. 최근 공개매수자 및 자문사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적발·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계속)

-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정보 보호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

내용
•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거래 내역 주기적 점검을 위한 임직원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여부
• 내부정보 접근 제한, 정보 암호화, 외부 공유 통제 등의 내부통제 절차의 적절성
• 적발 시 보고체계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 수립 여부

-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이에 기업은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주요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규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상장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상장법인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으로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공개매수(예정)자 및 관련자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개매수예정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
2.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으로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UPCOMING EVENTS I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2025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감사위원회의 공통된 생각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5월 1일 (목) 오전 02:00
장소	온라인 시청
패널	• 크리스타 파슨스(Krista Parsons): 회계감사 거버넌스 서비스 및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Managing Director,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리더 • 바네사 테이텔바움(Vanessa Teitelbaum): Center for Audit Quality (CAQ) Senior Director
개요	• 딜로이트 글로벌의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Center for Audit Quality(CAQ, 감사품질센터)가 공동 작성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제4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와 협업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변화하는 우선순위, 당면과제 및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임

UPCOMING EVENTS I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02: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및 도입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사회는 AI 전략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AI 통합 시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조직 목표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 이사회가 AI 논의와 지역 내 시급한 현안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직면한 도전과제와, AI 관련 논의가 이사회 내 다른 중요한 이슈를 압도하지 않도록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제4판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실무지침과 통찰을 담은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제4판을 발간함

➢ 제4판에서는 특히 '23-'2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주요국 및 주요기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사항,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24 개정판 등 최신 내용을 반영함

구분	목차
I. 기업지배구조	❶ 기업지배구조 정의 ❷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프레임워크 ❸ 거버넌스 관련 보고서 공시 ❹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II. 이사회	❶ 이사회의 역할 ❷ 이사회의 핵심 관심 영역 ❸ 이사회 감독기능 효과성 모델
III. 감사위원회	❶ 감사위원회의 의의 ❷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❸ 감사위원회의 운영 ❹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❺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수 및 교육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13.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해설 및 체크포인트 14.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 15. 경영진의 검토 통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동영상 보기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I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I Strategy, Risk & Transactions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I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 채널]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